

투데이 칼럼

효과적인 말하기 실전 기법

요 사이 모든 영역에서 소통의 문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화두가 되었다.

흔히 의사소통은 입말, 몸말, 글말로 행하여지지만 의사소통은 크게 언어적 기법과 비언어적 기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언어적 기법 보다는 비언어적인 기법이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결과 몸짓이나 표정, 자세, 분위기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55%를 차지한다고 한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두 가지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비언어적 기법이다. 가능한 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한다.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자세는 편안하게 약간 앞으로 숙이는 것이 좋다.

고개를 뒤로한 고압적인 자세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어 따뜻한 분위기를 해친다.

시선은 상대방의 눈을 향한 채 이야기한다.

특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시선을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강조되어 전달된다.

물론 노력보다는 듯한 시선을 피해야 한다.

표정은 여유 있는 은은한 미소가 좋으며 몸짓은 자발적이고 자유스러운 제스처를 이용할 수 있어야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하고 손동작이나 몸짓을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자.

음성은 딱딱하지 않은 따뜻한 목소리가 좋다. 지나치게 큰소리, 높은 음역의 말소리는 피하자.

듣는 이의 반응을 말하는 이의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의 '음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신이 하는 말이 참말이라는 어떤 주장도 그 말을 하는 방법에 담긴 비언어적 표현의 확인만은 못한다.

말하는 이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의 변화를 주변 언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목소리의 높낮이, 강도, 강세, 속도, 크기 등이 표현된다.

둘째, 언어적 기법이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기법은 대화의 분위기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역시 그 내용의 중심이 되는 언어적 기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어적 기법을 활용해보자.

① 남이 아닌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다. '~가 그러는데.....' 식으로 남의 의견을 내세우면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기 쉽다.

"나의 의견은 어떻다", "나는 어떻게 느꼈다"라고 표현해보자.

② '너 대신 나'를 사용한다. "너는 왜 항상 약속을 안 지키니?" 보다는 "나는 네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걱정이란다."가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한다.

특히 청소년의 행동과 관련된 대

화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해 느낀 대로 말해준다.

④ 가능한 짧게 이야기한다. 결론이나 요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요령이다.

⑤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자주 확인한다.

나는 내 할 말만 하면 된다는 태도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 가며 말하는 것이 좋다.

⑥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한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데 너의 생각을 듣고 싶구나." 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⑦ 칭찬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이야~ 쪼리 있게 의견을 잘 표현하는구나", "참 잘했어", "그때 참 기뻐한다." 라는 식의 긍정적인 말은 보다 개방적인 대화 분위기를 유도한다.

그러므로 스피치 평가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요소인 내용(what), 연출(how), 전달(who)이므로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잘 연 출하여 상대방에게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잘 연출하여 철저한 연습을 통해 상대의 욕구를 채우면 말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사설

탈진북 현상이 심각하다

탈진북 현상이 심각하다. 심각해도 너무나 심각하다. 도내 모 언론사에 따르면 지난해 떠나간 사람이 25만7천 명으로 전임자 수 24만3천 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도내 젊은이의 대다수가 전북 지역에 아무 미련이 없을 거라는 게 또 다시 확인되었다. 그 이유의 내용을 보니 전북 지역의 취업률이 전국 꼴찌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알만하다. 저번에도 지적했거니와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에서 일 자리를 찾은 친구들을 도내의 미 취업 젊은이들은 부러워하고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분발해야 한다. 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한다. 지역 경제가 늘 빨간불이라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데 구태의연한 대책으로는 그 약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미취업 전국 1위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나 떨쳐버릴 것인가. 전북도가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먼저 실업수법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현재 청년 고용 열기가 식어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했는데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관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겠다. 시간제 일자리에 매달려 고달파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인생 설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 고용 소크를 언급할 때도 지적했거니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진정성이 관건이다. 도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하는 세월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고용 창출에 진정성을 가져야겠다.

저출산 문제 여전히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0년간 출생통계를 조사한 것이 저번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이 답답하다. 출생률 결과를 놓고 볼 때 나아진 것이 전무한 까닭이다. 출생률이 가장 저조했다는 1995년도와 비교해도 출생률이 떨어졌으니 말이다. 당국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뭐 했느냐고 다그치고 싶은 기분이다. 정말이지 이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하고도 도민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은지 묻고 싶다.

전북도는 지난 날 거듭해서 발표했던 말들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한 때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여태 진전이 없어 보인다. 고민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다 변명을 위한 보고였지 싶다. 저출산 문제가 지역의 오랜 숙제였음에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저출산 대책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관계 전문가들과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 이후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도 그후 감감 무소식이다. 정말이지 이래로는 지역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에 '데드 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이 지 데드크로스 현상은 이미 2016년부터 있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야 맞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수 배워야겠다. 그런데 전북도는 조용한 상태 그대로라 비교가 된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보충일로 여겨선 안 된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인 모색이 필요한 오늘이다. 아이낳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겠다. 전북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2백만 도민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8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팩트이다. 거주 인구 고령화 고착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 지금 고민해야만 한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전북도는 저출산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겠다.

독자제언

다가 올 신학기, 학생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어느새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전국의 학생들 개학일이 다가오고 있다.

신학기 학생들 중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적응을 해야 하므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다.

경찰청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특히 새 학년이 시작될 무렵 개학 직후 3~4월에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평소보다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새 학년에 들어서면 친구들을 사귀는 과정에서 낯선 분위기로 인해서 서로를 경계하여 학생들 간에 편 가르기를 한다든지 위력을 과시하여 절없는 학생들 간에 폭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가 신학기에 학교에 가기

를 싫어하거나 지나친 운동을 요구한다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혹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아닌지 관심 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측과 수시로 협의하여 학기 초에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117신고 절차와 처벌 등 학교폭력이 장난이 아닌 범죄임을 일깨워주는 범죄예방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련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상담 및 관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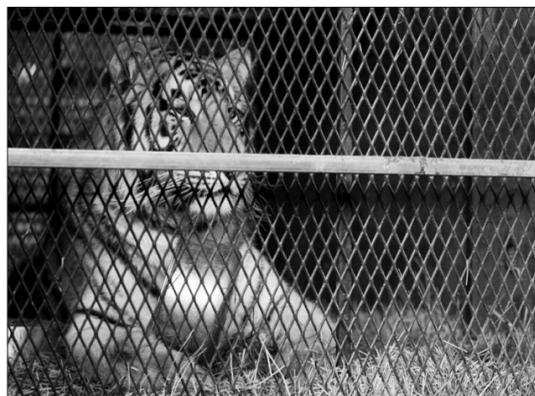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의 옆에 있는 학교에서는 교사,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관련 징후가 보이는지 관심 있게 지켜 봐야 할 것이다.

김성일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실 경사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빈집 들어가니 호랑이가 “뜨익”



12일(현지시간) 티 텍사스주 휴스턴 남동부의 한 빈집에서 발견된 호랑이가 유기동물구조센터로의 수송을 기다리고 있다. 미리화나를 피려 빈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집 안 우리에 갇혀있는 호랑이를 발견, 당국에 신고했으며 이를 미리화나에 취한 것으로 오인했던 당국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그들의 말에 빈집으로 출동해 호랑이를 구조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